

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

-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「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」 안건을 준비하였습니다.
- 최근 국제 통상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
 -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,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안정적인 교역 질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.
 - 이러한 상황에서, 12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CPTPP는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과 안정적인 교역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.
 - 인도네시아, UAE, 중국 등 11개 국가들도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이미 가입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.
 - 우리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.
 -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시장을 넓히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일각에서는 이미 논의가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CPTPP 가입에는 분명 기회와 함께 부담도 존재합니다.
 -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, 안정적인 통상규범 참여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, 일부 산업과 지역에는 적지 않은 부담과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- 따라서 정부는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.
 - 무엇이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지,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부담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.
 -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어민과 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, 이해관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- 과거 FTA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거나, 때로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.
- 정부가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먼저 듣겠습니다.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걱정도 있는 그대로 듣겠습니다. 필요한 경우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, 그 결과가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특히 오늘 논의는 CPTPP 가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. 가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격적인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.
- 가입 신청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곧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이후 여러 회원국과의 협상이라는 긴 과정이 있고, 최종적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.
- 정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국익을 중심에 두고 소통과 경청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겠습니다.
- 속도만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. 그렇다고 변화하는 통상질서에 뒤처지지도 않겠습니다.
 - 충분히 듣고, 투명하게 설명하고,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